



## 영화와 함께하는 시간여행

《씨네마니아》  
펴낸 여석기 교수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번 책에 수록된 글들 중에는 《모로코》 《망향》 《크나큰 환상》 《인생유전》 등 저자의 연배가 아니면 추억할 수 없는 불후의 명화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늘에 가려 있던 이 영화들이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디오 산업이 발달한 것이 이번 글을 쓰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3,40년대 감동을 받았던 영화들을 다시 찾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책과 마찬가지로 영화도 ‘고전’의 개념을 획득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 까요.”

영화가 한번 상영되고 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영화는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 비디오 문화이고, 저자는 이런 문화현상에 긍정적인 자극을 받은 것이다.

저자는 《크라임 게임》 《패왕별희》 《포레스트 검프》 등 최근 영화도 독특한 해법으로 읽어내고 있다. 영화를 ‘자본과 인간과 집념과 행운(또는 불운)이 합쳐져야 가능한 예술’이라는 실제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허구를 통해 현실보다 더 깊은 진실을 만들어내는’ 영화의 매력을 직시하고 있다.

—허연 기자



“처음 영화보기를 시작한 것이 1939년 이었습니다. 고등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영화보기’는 20대 전후의 정신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영문학을 전공하고 대학 강단에 서면서 영화는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30년대에서 90년대 영화에 이르기까지 33편의 영화에 대한 애정과 미학을 담아낸 책 《씨네마니아》(솔)를 출간한 여석기 교수(74. 고려대 명예교수)는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초심(初心)’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94년 모든 자리에서 은퇴한 후 그는 57년전 자신이 처음 영화를 볼 때 마음으로 돌아갔다. 자신을 설레게 하고 꿈을 심어주던 당시의 마음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래서 그의 글에선 나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요즘 활발히 활동하는 어떤 평론가의 글보다 젊고 감각적이다.

“은퇴 이후 이 책을 쓰면서 글쓰기의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전공에 관련된 글을 써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오랜만에 생긴 여유를 즐기고 싶었습니다. 영화 전문가가 아닌 애호가로서 이 책을 쓰면서 많은 공부도 하게 됐고, 할리우드 영화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편견도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여교수의 영화 에세이는 그동안 쏟아져 나온 비전공자의 영화글들과는 확연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그의 책은 여기저기 연재했던 글을 모은 것이 아니다. 마감에 쫓겨 만들어낸 것들이 아닌 은퇴 이후 일정한 시기 동안 정해진 창작의도를 가지고 매진한 결과물인 것이다. 둘째로 그의 영화글은 이른바 ‘할리우드 키드’ 세대나 ‘이소룡 세대’와는



## 흥겹고 역동적인 우리나라의 놀이들

《우리 민족의 놀이문화》  
펴낸 조완묵씨

우리의 생활습속, 놀이의 유래와 역사적 변천, 놀이의 내용과 노는 방법 등 구체적이고도 실증적인 내용들을 저자의 경험과 상상력으로 재구성한 이야기 속에 재미있고 역동적으로 엮어낸 독특한 형식이 이 책을 읽는 흥미를 더한다.

“어린시절 서당에서 한문공부를 한 것이 문헌들을 뒤지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문헌 속에 나타난 유적지를 힘겹게 찾아냈으나 그곳이 지금은 자취도 없어진 것을 확인할 때는 너무나 안타까웠다”고 말하는 그는 우리 고유의 문화를 발굴하고 지켜나가려는 사람들의 관심이 좀 더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앞으로 공기놀이나 비사치기 같은 우리 고유의 유희를 정리한 책을 펴낼 계획인 그의 진짜 소망은 좋은 시, 누구에게나 오래 애송되는 시를 쓰는 일이다. 그는 1947년 시 〈청춘수기〉로 등단, 〈백맥〉 〈시탑〉 동인으로 활동했으며 시집으로 《마음의 성좌》 《애련설》을 내놓은 바 있다.

—박남정 기자

“아주 오랜 옛날 우리나라에도 스포츠가 있었을까?”

야구, 농구, 축구, 테니스 등 현재 우리가 즐기고 좋아하는 스포츠들이 온통 외국에서 유래된 것임을 염두에 둔다면 이런 의문은 누구나 한번쯤 가질 만하다.

조완묵씨(70)가 최근 펴낸 《우리 민족의 놀이문화》(정신세계사)는 우리에게도 재미있고 역동적인 전통 스포츠와 놀이들이 있었음을 흥미롭게 보여준다.

“언론사에 몸담고 있던 60년대 대한체육회에서 내던 기관지인 《월간체육》 편집장의 권유로 우리 전통스포츠에 관한 기사를 연재하면서부터 우리 전통스포츠를 밝히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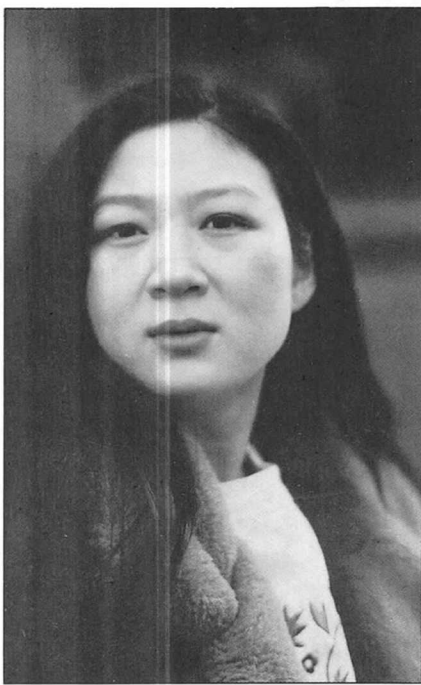
우연찮은 기회에 시작된 이 일이 벌써 30여년. 그의 작업이 책으로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태권도 협회의 의뢰를 받아 태권도의 역사를 정리한 일이며 《동아세계대백과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에 전통스포츠 관련 항목을 집필하는 등 그는 한국 전통스포츠의 첫 발굴자인 동시에 이 분야 연구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이 책에는 씨름, 궁술, 택견, 널뛰기 같은 순전히 우리 민족 고유의 놀이와 외래문화의 영향으로 밖에서 들어온 것을 받아들여 우리의 놀이로 슬기롭게 소화하여 토착화시킨 그네뛰기, 줄타기, 격구, 장치기 같은 놀이를 모두 소개한다. 이밖에 편싸움, 햇불싸움 같은 전투적이고 용감무쌍한 놀이가 있는가 하면 강강수월래, 놋다리밟기 같은 집단적인 정서가 담백 담긴 놀이도 있다.

이러한 개개의 놀이에 얽힌 사연과





## 중첩된 삶의 뒤를 바라보는 세상읽기

〈책〉  
펴낸 송경아씨

드러낸다. 그의 이번 작품집에 묶인 작품들만을 보더라도, 인간세계를 정보화된 세계로 재구성해 혼란에 빠진 세상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바리-길 위에서〉, ‘이차돈’과 변혁운동에서 고문당한 인물을 역사적 필연성을 상쇄하는 의미로 부각시킨 〈이차돈 초상기〉, 철거라는 상황에서 투쟁과 외침보다는 탄식과 비판의 목소리에 주목하는 〈철거〉, 집단 이데올로기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는 〈우리나라는 어디 있니?〉 등은 불확실성, 우연, 불가지론에 대한 편향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현실과 객관적 거리를 두고자 하는 의도가 환상적인 가정을 하나의 실재로 설정하게 합니다. 개인적으로 감상주의적인 것을 싫어하고, 서사구조가 비슷비슷한 우리나라 소설보다는 나보코프, 코진스키, 보르헤스 등 외국작가의 작품을 많이 읽은 탓일지도 모르지요.”

치열한 삶의 경험을 풀어나가는 언어행위와 정보와 영상의 이미지로 세상을 읽어나가는 행위 자체는 다를 수밖에 없고, 제 나름의 표현양식을 찾아가는 독자적인 영역의 개척인지도 모른다. 송경아씨는 현재 장편을 하나 구상중인데 올해 안에 발표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을 내비친다.

—이정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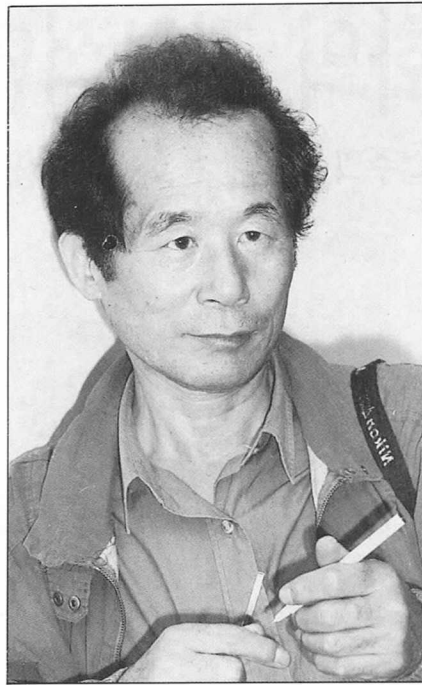


“글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평을 받고 싶습니다. ‘신세대 작가’ 또는 ‘신세대적 글쓰기’라는 무조건적인 규정이 제대로 된 평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 외에는, 제 글쓰기 방식에 있어서 아직 어떠한 범주에 묶을 수 있을 만한 건 없다고 봅니다.”

기성사회에 편입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불안과 방황을 그려낸 〈청소년 가출협회〉로 94년 등단, 정보화 사회 컴퓨터 세대들의 새로운 글쓰기 방식을 보여주었던 송경아씨(25)가 첫번째 작품집 《성교가 두 인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연구 중 부분인용》 이후 《책》이라는 짧은 제목의 창작집을 펴내 화제가 되고 있다. 표제작 〈책〉을 비롯해 7편의 단편을 묶은 창작집이 첫 작품집과 마찬가지로 ‘신세대’ 작가로서의 개성과 특징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 약간의 불만을 토로하는 송경아씨는 기성세대의 단순한 언어적 호칭에 불과한 ‘신세대’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다.

“세계에 대한 인식을 명료히 하고 그것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작가로서의 노력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세계는 단선적이지 않고 꿈, 기억, 상상, 욕망 등으로 끊임없이 서로 중첩되고 간섭하게 되지요. 제가 소설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이러한 복합적이고도 설명되기 어려운 현실의 고리들입니다.”

그러나 ‘세계 속의 나’의 의미를 묻던 80년대의 역사 의식과 90년대 초반을 거쳐 거대담론이 해체되면서 어떤 실체도 명확하게 경험하고 인식하기 어려워진 세대의 의식은 작품에서 상이한 특성을



## 언어의 벽 뛰어넘은 내면의 울림

《종이거울 속의 슬픈 얼굴》  
펴낸 최민식씨

사진작가 최민식씨(68)가 사진과 글이 한데 어우러진 사진산문집을 펴냈다. 표지에는 초라한 한끼 식사를 하고 있는 작은 소녀가 맑은 눈망울을 들어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다. 축 쳐져버린 늙은 젓가슴을 어린 자식에게 물려주고 있는 시골 아낙, 한쪽 팔과 다리를 잃어버린 불구의 몸이지만 외다리로 힘차게 땀방울을 하며 신문을 팔고 있는 청년, 깊은 주름살을 남기고 흘러가버린 세월을 향해 물끄러미 서 있는 노인... 책장을 넘길 때마다 펼쳐지는 그 사진들은 저마다 말을 건네온다. 언어의 벽을 뛰어넘은 그 내면의 울림은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본원적 운명을 향해 열려 있어 가슴 저릿한 슬픔과 고독이 깃들어 있다.

“연출에 의해 찍은 사진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늘상 가면처럼 쓰고 다니는 위선과 가식의 틈을 비집고, 가난한 알몸뚱이 삶을 카메라에 담고자 하는 최민식씨는 스냅 샷 기법을 선호한다.

사진작가협회에서 그가 가장 많은 필름을 쓰는 작가로 소문이 나 있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하루 평균 36장짜리 롤필름 20통을 사용하며, 욕심을 내는 날은 30통이 넘게 사진을 찍는다. 촬영을 마치고 귀가하면 일기를 겸한 촬영일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하는데, 그 글들을 정리하여 이번에 산문집에 실었다.

“혈벗고 굶주린 사람들의 사진을 주로 찍는다는 이유로 군부독재 시절에는 탄압을 많이 받았습니다. 외국에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 여행조차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죠.”

70년대와 80년대의 서슬퍼런 공안정국은 ‘진실’을 용납하지 않았고 최민식씨는 안기부에 끌려가 추궁당하는 고초를 겪어야 했다. 그러나 그의 창작열은 탄압과 가난 속에서도 식을 줄을 몰랐고, 국내의 사진공모전에 220여점의 사진이 입선하고 15회에 달하는 국내의 개인 초청전을 가지는 등 국경을 넘어 깊은 공감을 일으켰다. 어려웠던 당시를 회상하면서 독일 신부 임 세바스틴의 도움과 처가 식구 덕에 그 어려운 시절을 밥 굶지 않고 넘길 수 있었노라고 웃어보이는 그는 책에 실린 산문에 다음과 같은 구절을 적고 있다.

“창작이란 창조인 동시에 고통과 인내를 각오해야 하는 도전이다.”

그는 앞으로 인도, 남미, 아프리카 등지를 순례하고 나서 세계 여러 인종의 진실된 모습을 담은 사진집을 낼 생각인데, 벌써 ‘인간 심포니’라고 그 책이름을 지어놓고 있다.

—한동림 기자

